

국내 전문대학과 여성교육: 그녀들의 ‘냉각된’ 교육과 취업 열의

최숙¹⁾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다음의 몇몇 국면들에서 형성하게 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획되었다.

1.

올해 가을이 막 시작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교사가 부족한 국가에 한국인 교사 파견을 확대해 한국의 교육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교육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국가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며,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당장의 끼니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 정부는 부족한 예산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 우수한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

2.

지난여름, 연구자의 조카아이가 어렵게 들어간 전문대학을 그만두겠다고 말해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집안의 어른들보다 두 뼘 쯤 열쇠가 큰 이 사내아이의 의지를 아무도 꺾지 못했다. 그 아이의 엄마는 기술 하나 번듯하게 익히면 졸업 후 탄탄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 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대학교의 전문가라고 지목된 본 연구자는 그 아이가 자퇴하겠다는 것을 뜯어말리는 임무를 맡아야만 했다.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휴학을 검토해 보라는 권유로 겨우 설득하여 지금 그 아이는 전문대학교의 휴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두 달째 살고 있다. 요새 조카는 만날 때마다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젊은 미소를 짓는다. 매일 즐거운 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기술 좋게’ 잘 구워 ‘기술 좋게’ 한입크기로 잘라낸 고기를 이모의 하얀 공깃밥 위에 올려 주면서 조카는 매번 부르짖는다. 왜 필요도 없는 대학을 자꾸 가라고 하는

1)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같은 과를 졸업한 선배 중에 지금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버는 것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이다.

3.

지난봄부터 최근까지 출판·인쇄 계열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학교 학생들과 방송·영상·연예 계열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 포부 현황 파악 연구를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바람을 파악하는 가운데 여학생들 중 몇몇의 공통된 답변이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학생들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남학생들과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육아, 가정과의 병행이 가능한 직업이든 그것을 어렵게 해도 극복할 것이라고 답변하든 어느 쪽도 그 병행에 대한 고민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60여 명의 답변자중 반절은 되는 남학생들이 일과 가정의 병행보다는 급여 수준과 여유 시간에 대해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 중 어떤 학생들은 “여자라서 차별받지 않는” 직장을 원하고 있었다. 남자라서 차별받는 것에 걱정하는 남학생은 없었다. 이처럼 선명하게 남녀의 답변이 구분되는 것을 듣는 것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출판 디자인을 “여성들이 가지면 좋은” 직업으로, “적당히 벌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임을 강조하는 교육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언급도 불편했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그러한 피상적인 차원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4.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의 분과 모임 커뮤니케이션과 젠더스터디에 참석하며 조앤 스콧(Scott, J. W.)의 저작들을 작년부터 접해 왔다. 중세 유럽의 여성 노동에 대한 탁월한 해석들을 접하면서, 그간 피상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여성의 노동과, 오늘날 노동 현장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교육과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본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가 마주쳤다.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해방 이후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과 부조리한 체계를 감수하며 일해 온 여성들의 노동,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여성들의 위치, 특히 그러한 위치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여성 교육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차이의 딜레마’에 주목했다.

*

이에 본 연구는 상기 배경에서 미디어 관련 산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여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국내 여성의 노동 문제에 산적해 있는 불평등함은 취업에 대한 포부를 가지기 훨씬 이전, 가정과 학교 교육에 상당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되어 왔다. 양성평등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유·아동기 시절부터 성인 전기까지

의 여성들은 학교 내에서 젠더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정형을 각기 변형하며 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과 직업에 대한 국내 여성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하나의 목소리를 더해보고자 한다.

국가 정책의 방향과 현실이 불일치되고 있는 우리 교육 전경의 역설적인 풍경에 대한 궁금함에 답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국내에서 취업난의 해결 방식으로 전문학교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을 광고하고 있으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도 수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공존하고 있는 괴리적 현상을 자세히 살펴 보고자 했다. 특히 취업난이라고 불리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청년 실업에 관한 담론에, ‘직업교육중심’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선두에서 개도국 소녀들에게 전파하려고까지 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했다.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으며 성인 전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의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했다. 그 여성들에게 대학은 어떠한 의미이며, 대학 내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의 경험은 그녀들의 삶의 어느 영역을 어떠한 의미로 구성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전문대학이 젊은 그녀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평등한 노동의 현장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길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II. 전문대학과 여성교육

1. 전문대학의 두 얼굴

전문대학²⁾은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독자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 전문직업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인한 높은 취업률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한다(Adelman, 1992; Pascarella, 1997).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내용이 학문 중심의 지적 훈련에 치중되어 있다고 평가되던 지난 세기까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고등교육은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에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소위 ‘미국적 사고’ 안에서 전문대학은 실용적인 선택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이 연도별 졸업자의 취업률의 변화를 보면 4년제 대학 대비 전문대학 취업률은 중 2-3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꾸준히 높은 취업률을 기록해 왔다. ³⁾ 취업 유망학과에서 4년제 대학

2) 전문대학을 지칭하는 용어, 다시 말해서 전문대학의 명칭은 단기고등교육기관(短期高等教育機關) 또는 단기고등직업기관(短期高等職業機關), 대학(college, 大學), 초급대학(junior college, 初級大學) 또는 지역사회대학(communitary college, 地域社會大學), 2년제 대학(two-year college) 또는 3년제 대학(three-year college) 등 매우 다양하다(오옥환, 1999). 특히 한국에서 전문대학이란 단기고등교육기관(短期高等教育機關) 또는 단기고등직업기관(短期高等職業機關)으로서 고등교육기관들 중의 하나로, 단기(短期) 즉 2~3년의 과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양창현,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문대학’의 정의는 단기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전문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국공립·사립 전문대학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따른다.

졸업자들의 재입학이 늘어나는 유턴(U-turn)현상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 전문대학 설립의 본질적 의의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적재적소의 전문 인력 즉 양질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 해 보인다. ‘대학이 태동한 지 30여년을 거쳐 오면서 지금까지 5백만 명에 달하는 산업 역군을 양성해 온 것은 전문대학의 큰 위업’(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임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전문대학은 고등교육체제의 주변부에서 애매한 위상과 정체성의 모호, 비전공 강사진과 ‘백화점식 학과 운영’ 등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선별적 또는 선택적 입학에 고집하는 4년제 대학이 상층, 개방적 입학을 지향하는 전문대학이 하층부를 차지하는 위계적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낮은 비용으로 노동계층인 ‘블루 컬러’학생들이 대거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고무되었고 이로서 교육 인플레이션에 공헌하여 중등 이후 교육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평가한 캐러벨의 논의는 지금 국내의 현실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Karabel, 1972b). 국내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정체성이 없어지고 학교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과거에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 유사한 학과가 많아 정체성이 모호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 특성학과처럼 운영하며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용적인 학과 설치에 바쁘다. 게다가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기관, 또는 4년제 대학 탈락자를 위한 구제장소로서 인식하는 문제(홍승희, 1989)도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학사 유연화 조치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고위 관직에 승진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인 직업기술인력 양성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은 학력수준이 낮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4년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는 대학으로 치부되어 4년제 대학보다는 수준이 낮은 대학으로 폄하되곤 한다. 또한 전문대학의 교육은 고등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이나 기능훈련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는 인식하에 노동시장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고등교육 수준에 걸맞지 않은 차별적인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존재하며 정체성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양창현, 2003).

2.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상충적 해석

전문대학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전문대학의 민주적인 성격과 평등화 정책을 강조한다(Kettlewell, 1986).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구분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2010	55. 6	51. 9	52. 6	62. 4	31. 7	-
2012	60. 8	56. 2	64. 7	65. 3	28. 0	82. 2
2014	61. 4	54. 8	66. 5	61. 1	21. 4	85. 5

3) 국내 대학유형별 취업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보.

고등교육에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해 왔다. 특히 전문대학의 지도자는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는 전문대학 교육제도는 학생들을 성공의 사다리(ladder of success)로 이끈다고 주장했다(Valadez, 1993). 전 국민이 고등교육 학력 소지를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게 하였고, 고등교육기회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높은 교육비용으로 계층이 낮을수록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은 감소한다. 이에 전문대학이 중등 이후 교육 즉 고등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증가시켜 교육 과정에서의 민주적 효과, 평등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Leigh and Gill, 2003).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저소득층 혹은 가부장적인 가족의 여성들은 부모의 반대로 대학으로의 진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되었고, 이로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공헌하게 된 바를 단편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민주적 효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상충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Brint and Karabel, 1989; Rosenbaum et al, 2007). 전문대학은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육 평등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4년제 대학과는 별도로 차별화된 교육을 요구하는 고용주의 압력을 수용했다. 또한 민주 사회에서의 시민을 위한 교양교육을 제공하면서 산업화된 경제 사회에서의 노동자를 위한 기술훈련을 전수하였다. 해외, 주로 미국의 전문대학에 대한 분석들과 비견되는 한국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전문대학은 하류 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양을 갖추고, 고등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이동을 시도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상충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개방입학 정책, 저렴한 등록금 정책, 가까운 통학 거리 정책 등을 통한 지역사회대학의 설립은 학생들의 교육적 열망을 부추기고 있다. 고교 출신자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입학자원 감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전문계 고교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짧은 교육연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업교육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직업교육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경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고등학교와는 물론 4년제 대학 및 산업대학과 산업체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계급화되어 있는 산업사회와 직업세계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계약/협약학과와 도입, 군특약학과와 개설 등을 통해서 지배계층의 구조에 공헌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이러한 상충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평등성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불평등성이 강화되었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전문대학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요하는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전문대학 교육에서 결과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고등교육에의 민주화를 가져왔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호평이 너무나 한계가 많은 해석이며, 전문대학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학생의 교육적 달성(attainment)을 낮추게 하면서 불평등적 재생산 기관의 역할을 하는 비민주적인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Karabel, 1972b,

1977, 1986; Pincus, 1980, 1986; Birenbaum, 1986). 그 비판의 핵심에는 전문대학의 냉각기능이 있다. 전문대학이 전문대학생의 교육적 달성을 낮추게 하는 방법의 대표가 냉각(coolingout)이기 때문이다(Roksa, 2006).

기능주의 사회학자 클라크는 전문대학의 교육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직업적 열망을 부추기게 하는 교육의 가열 기능이며 이는 고등교육이 학생들에게 계층 상승이동을 추진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학생들을 계층 상승이동을 추진하도록 마냥 부추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기능도 수행함을 부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냉각기능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하게 하여 기대수준을 낮추고 실현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회는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하류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능력의 부족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욕구 불만에 의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부추겨 계층 상승 이동을 시도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하류

하류 계층의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은밀하게 담당하고 있다(Karabel, 1972).

이는 앞서 밝혔듯이 상층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전문대학의 위상 또는 위치(position) 때문이기도 한데, 교육적-사회적 계층화 구조에서 차지하는 전문대학의 위치로 인해 전문대학은 상류 계층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열망을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Brint and Karabel, 1989). 결국 전문대학의 불평등적 기능은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이며, 이에 전문대학은 개방과 평등을 위해 설립 운영된다고

구분	1975	1985	1995	2005	2015
일반대학	26. 5	26. 8	31. 9	36. 8	40. 4
전문대학	28. 5	36. 0	37. 6	37. 1	40. 1

게다가 특정한 학문 영역의 높은 여학생 구성비에 관한 통계자료는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표2>와 <그림1>에서 보이는 편향성들은 각 영역의 전공과 관련이 깊다. 전문대학의 교육계열에서 여학생 구성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유.아동 보육, 유아교육과 관련되어 있어서이며, 의약계의 경우 간호학, 보건학 그리고 치위생 관련 전공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에도 여학생 구성비가 현격히 낮은 전공영역은 공학계열이며 이는 4년제 일반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성차에 따른 구획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료는 르위스를 포함하는 전문대학 지지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여성이 전문대학을 통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주장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게 한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이분법적 가치는 전문대학교육 뿐 아니라 일반대학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업무 기간에 따른 직위 고하뿐 아니라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 중심 직업과 주변직무로 위계가 나뉘고, 급여와 처우가 심각하게 차별적인 영역에서 성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 간의 위계적 배치, 예를 들어 의약계 직군에서 의사-간호사-조무사 등, 교육계 직업에서 일반교사-계약직 교사-중고등학교 교사-유아동 보육교사 의 관계가 위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차에 의한 계층 구분이 뚜렷한 영역으로 진입하기 쉬운 전공의 전문대학에 여성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주류적 차원의 배려나 특혜라고 해석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전문대학에 대한 비판자들의 주장처럼 여학생들을 한 번 더 계열화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위: 명, %

2015	전문대학 여학생 구성비율			일반 대학 여학생 구성비율		
	전체	여학생		전체	여학생	
인문계열	19, 587	11, 167	57. 0%	264, 619	144, 673	54. 7%
사회계열	166, 383	78, 919	47. 4%	603, 377	251, 505	41. 7%
교육계열	31, 565	29, 849	94. 6%	86, 241	50, 351	58. 4%
공학계열	218, 473	18, 376	8. 4%	562, 506	95, 478	17. 0%
자연계열	52, 565	19, 793	37. 7%	255, 151	112, 565	44. 1%
의약계열	120, 852	77, 556	64. 2%	118, 137	72, 734	61. 6%
예체능계열	111, 041	55, 281	49. 8%	223, 262	121, 117	54. 2%

총계	720, 466	290, 941	40. 4%	2, 113, 293	848, 423	40. 1%
----	----------	----------	--------	-------------	----------	--------



이렇게 성차에 따른 계열화의 위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문대학의 주요 교육 이념인 직업교육⁴⁾에 따라 설치된 학과 수업의 참여, 교수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열망(이하 취업 및 직업 포부⁵⁾)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냉각의 시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기대수준을 낮추고 실현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냉각 기능은 여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여성교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주목한 것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인데, 전문대학의 냉각 기능이 여성교육에서 작동할 때,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문제가 한 겹 더 씌워지기 때문이다.

4. 여성 직업교육과 취업포부 형성에서 발견되는 ‘차이의 딜레마’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만이 아닌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삶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구직자들은 이상적인 직업의 상(象)을 가지고, 그 상에 가까운 직업을 획득했을

4) 한국 전문대학의 설립 기원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의 전문대학은 초급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초급대학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4년제 대학과 함께 설립되었는데, 해방 이후 초급대학과 4년제 대학의 문호가 좁았을 때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대학 편입 기능을 전문대학 교육의 주요 기능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등장한 전문대학은 교육체제가 변해 학교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전문대학의 역사적 배경과 정체성 역시 한국의 전문대학이 편입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직업포부는 종종 이상적인 바람(wish)이 반영된 직업적 선호(preference)와 현실적인 조건 및 계획을 고려한 직업적 기대(expectation)로 구분되어 연구되었다(Johnson, 1995). 직업적 선호란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 능력, 자원에 따라 구체화되는 이상적 포부를 의미한다. 반면 직업적 기대는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외적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설정한 직업선택이나 진로계획 등 현실적 포부를 의미한다. 특정시기에 개인의 희망진로와 진로계획은 합치할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포부를 결정하는 흥미, 능력, 가치관 등 개인의 내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계층구조, 성 역할, 고정관념 등 외적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취업 포부의 형성은 단지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만으로 볼 수 는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단지 바람(wish)이 아닌 열망, 욕망이라는 어휘를 혼용하게 되었다.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재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만족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그들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년기의 과업으로 당연시되고 있다(최숙·윤미진, 2015).

오늘날 취업과 직업 활동은 교육의 결과, 혹은 효과이기도 하다. 이에 각 분야 전문직업 인력 400만 명을 양성 배출해 옴으로써 국가와 산업발전을 견인해 올 만큼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해 온 국내 전문대학은 청년 실업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안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해 보인다. 학생들에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로 활용하는 ‘직업교육’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대학이 전문대학교육의 효과를 학생의 입장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학교 차원 또는 산업체 입장에서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데서부터 모순이 발견된다. 전문대학의 홍보물은 대부분 취업률에 대한 정보를 최전경화한다. 그러니 학생의 취업포부를 가능한 산업체와 일치시키는 것이 전문대학의 사명이 되었으며 직업교육에서 가장 큰 목표는 졸업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처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다. 다만 입학 시 학생 모집부터 면접, 양성, 취업에 이르는 단계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업체를 찾기 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인 냉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다양한 징후대로라면, 취업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 여학생들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다. 직업포부의 제한-타협(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과정에 관심을 가져 온 고트프레슨에 의하면 구직자가 자신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직업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과정을 거치고, 선택된 직업이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정 부분은 포기하고 타협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의 내적인 판단은 제한이 되고,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 타협하면서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며 주로 꿈꾸던 직업의 성역할과 사회적 지위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조절 된다고 하는데(Gottfredson, 1981), 전문대학에서 여학생들에게 취업 눈높이를 맞추게 하는 과정에서 경쟁해야 할 ‘남성과는 다르게’ 될 것을 수용하든, ‘남성과 똑같이’ 될 것을 요청받든 차별적인 조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⁶⁾ 캐스터는 전문대학의 냉각 기능이 특히 교수나 학생 생활 및 진로 상담자들과의 상담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했다. 지나치게 높은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의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열망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열망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 열망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Kester, 1974). 또한 클라크

6) 평등고 차이에 대한 논의는 여성학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좀 복잡한 논의를 들자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여성과 남성은 다르지 않다고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통해 평등을 구성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문제가 역설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차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는 정의를 통한 결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차이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의 딜레마를 둘러싼 역설적 담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스콧의 저작,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를 참고.

에 따르면(Clark, 1980:16). 학생들의 진로를 수정하게 하는 이러한 대학 측의 노력은 '상담 과정', '열망의 조정(redirection)과정', '대안적 경력 과정' 또는 '경력의 대안적 과정' 등에서 냉각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 전문대학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하고, 한편에선 문화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으면서, 다른 한편에선 제도적으로 현실을 고려한 수단을 제공하는(Kester, 1974:2) 것은 비열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노동-교육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전문학교 시스템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열하는 기능이 아닌 냉각기능을 담당하고, 취업에 대한 열의를 냉각시키는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과 열망을 가열하지 못하고 냉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냉각의 방향 재설정 과정이 여학생들로서의 취업 포부를 가지는 데 열패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교육정책에 비해 역주행하는 것이다. 또한 비열하게 숨겨져 정당화되고, 정교하게 위장되어(Clowes and Levin, 1978) 학생들 스스로를 제한하게 하는 이중적인 냉각과정이 존재한다면 상세히 노출되고 논쟁되어야 한다. 따라서 냉각 과정이라는 방향 재설정 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시도되는 냉각의 명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III. 전문대학 여학생들의 냉각된 취업 포부: 그녀들의 이야기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에 적절한 방법론으로 심층인터뷰를 채택하였다. 특히 케네트 돌비어와 데이비드 슈만이 설계한 '세 번의 인터뷰 구조'를 채택했다(Seidman, 2006). 이는 연구자가 연구 주제와 관련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그의 삶의 맥락 안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안된다. 이 연구 설계에 따른 첫 번째 면담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관심을 두는 연구 참여자의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그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얻는 데에 집중한다. 이에 1차 인터뷰에서는 주로 전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배경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2차 면담의 목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청장년층의 직업에 대한 포부가 어떠한 직업가치와 결부될 수 있는 것인지에 집중하였다. 특히 1차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이들이 과거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떠한 의미였으며 이로서 어떠한 다른 취업 포부를 가지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3차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가 이제까지의 자신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숙고하고 반성해보는 기회로 이용된다. 그간 두 번의 인터뷰를 거치면서 이미 세부적인 경험들을 단편적으로 혹은 다소 연쇄적으로 구술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도입, 전개, 결말의 형태로 한편의 이야기를 조직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를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양해를 구할 것은, 본 연구에서 아직 섭외한 학생들과의 인터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이 아니며, 실은 아직 섭외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발표문을 작성하게 된 시점에서 3차 인터뷰까지 마친 경우는 한 명뿐 이다. 다른 세명의 여학생들의 경우 2차 인터뷰를 마쳤으며 마지막 한 명은 1차 인터뷰를 완료한 상황이다. 인터뷰 참여자들과의 만남은 서로 아는 친구들끼리 같이 만나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했다. 1차에는 주로 소개한 지인들과 함께 만나기도 했지만 1차에서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되면 2차에서부터는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게의치 않고, 더 선호하기도 했다.⁷⁾

인터뷰 참여자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나이	학과, 상황	고등학교/교육이력
A 아이유	20	시각 디자인(재학)	특성화 고등학교
B 보람	20	시각 디자인(재학)	인문계 고등학교
C 에일리	21	출판·인쇄(재학)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
D 보아	28	출판·인쇄(졸업)	4년제 대학 졸업
E 윤하	23	방송·영상·연예학과 재학	일반대 중퇴, 인문계고졸

1. 5명 여성들의 같은 목소리

5명의 전문대학 재학생, 혹은 졸업생들과의 인터뷰 녹취를 반복해서 들으며 분석하는 동안 이들이 들려준 공통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전공도 다소 다르고, 나이와 처한 상황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섭외한 여성들과 각기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려준 전문대학에서의 자신들의 삶과 취업에 대한 열의에 대한 이야기에서 공통된 것들이 발견된 것이다.

“지금 다니는(졸업한) 학교 마음에 들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5명의 답변이 동일했다. 질문을 받자마자 단호하게, 빠르게, 생각을 더 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곱씹듯이 다시 생각해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답변했다. 다섯 명 모두.

그리고 다섯 명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네 명의 여성들이 급여에 대해 비슷한 답변을 했다.

7) 일정의 조정이 어려워 발표일까지 시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이에 본 발표문은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 완성될 예정이다. 본 연구가 특정한 보편적 진리를 향한 일반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연구 과정의 중간에 이 발표문을 들고 나왔고, 결과 분석에서 향후 변화를 전제할 수 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한다.

그녀들은 급여의 정도가 취업에서 일순위의 조건이 아님을 정확히 표현했다. 급여의 수준에 대한 설명에서 정말 ‘기본적인’ 급여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부연하는 설명에서 보면,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면, 거리가 더 가깝다면, 업무의 과중함이 적어진다면 급여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하여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순위로 최상의 급여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없이 말하고 있었다. 이는 현실적인 취업 시장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철없이 급여만 따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삶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부의 축적이 아닌 오늘의 행복감과 시간적 여유 등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서의 취업이란 본인이 원하는, 열망하는 취업에 대한 이상에 흡족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재학중인, 또는 막 졸업한 학교에서 만난 교수들에 대해 다섯 명의 여성들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의 취업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본 연구자가 일반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가끔씩 과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취업에 신경써 주시지는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던 것을 떠올려 보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 대한 문헌 조사를 진행중이던 연구자는 그 ‘젊은 교수님들’의 취업에 대한 적극성이 ‘좋은 사람들’이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 후일 그 ‘젊은 교수님들’이 처해 있을 부조리한 상황에 대하여 학술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기록해 두었다.

2. 그녀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

본 절은 여섯 여성들이 들려준 그들의 삶에 대한 각기 다른 목소리에 대한 것이다.

아이유와 보람을 처음 만나 인터뷰를 실시한 것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날이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초가을이었다. 갓 스무살이 된 두 여학생들을 소개해 준 것은 올해

입학해서 이번 학기 휴학을 한 전문대학교 휴학생, 본 연구자의 조카였다. 같은 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에 다니고 있다. 좁은 어깨에 왜소한 체형을 가진 이 두 여학생들과는 서울 북동 지역의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1) 아이유

지금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꿈

취업

2) 보람의 이야기

입학하기까지

꿈

입학하고 나서

취업

결혼과 일

3) 에일리의 이야기

입학하기까지

취업

입학하고 나서

4) 보아

입학, 졸업, 취업, 그리고 꿈

결혼

5) 윤하

IV. 결론이 조금은 변하겠지만.

국내 전문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된 여학생들, 졸업을 앞둔 학생들, 그리고 졸업 후 취업을 한 여성들을 만나서 물어 보았다. 그녀들에게 (전문)대학은 무엇이고 무엇이었는지, 그

리고 그녀들의 삶에서 직업, 취업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심스럽게, 어렵게 물어 보았다.

인터뷰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개도국 소녀들을 위해 전문대학을 지원하여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는 단편적인 취업을 상승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고등교육의 현실과 효과를 성찰하기를 간과 하지 말아야겠다. “교육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굳건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 .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⁸⁾ 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국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여성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냈듯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입학 가능한 대학이 풍부하다는 점, 지역사회의 집 가까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그녀들의 대학을 선택하고 있었으나(Gannon, 1981; Goodmyn, 1981; Pope, 1983; Dougherty, 1994; Shannon and Smith, 2006), 입학후 졸업하기까지, 졸업 후 취업하게 되기까지, 취업후 재교육을 고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와 취업에 대한 열망을 식혀내고 있었다. 자조와 거리두기, 직시 등으로 감내하기도 하고, 냉소나 승화 등으로 회피하기도 하며, 투쟁과 전환을 시도하며 꾸역꾸역 전진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상적 포부를 현실적인 포부로 대체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되곤 하는 취업포부의 변화, 다시 말해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취업에 대한 열의를 전문대학의 여성들은 그녀들의 삶으로 구성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간의 여성들의 직업 포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적이고 단선적 효과 이론과 결부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바로 거기에 있는 여성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좀더 가까이에서 치밀하게 서술해 내고자 했던 것이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 박근혜(2015), 상기 연설에서 인용함

참고 문헌

- 변종임(2001). 전문대학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선택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14호, 275-296.
- 양창현(2003).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직업교육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옥환(1999). 미국 고등교육 경쟁력의 배경. 『비교교육연구』, 9(2), 1-37.
- 오옥환(2003).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 이종성·정향진(2003).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숙·윤미진(2015). 출판·인쇄계열 직업교육 학생들의 직업포부에 관한 연구: 직업포부 형성에서 고려되는 직업가치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내 출판관련 저널 심사중.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0).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Adelman, C. (1992). The way we are: The community college as American thermometer.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 Alba, R. D. and D. E. Lavin(1981). Community colleges and tracking in higher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54(4), 223-237.
- Bailey, T. , J. C. Calcagno, D. Jenkins, G. Kienzl, and T. Leinbach(2005a).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succes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Birenbaum, W. M. (1986). "From mass to class in higher education", In L. S. Zwerling (ed.), The community college and its critics.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54(2), 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rint, S. and J. Karabel(1989). The diverted dream: Community colleges and the promise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America 1900-198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B. R. (1960a). The open door college: A case study. New York: Mc Graw-Hill.
- Clark, B. R. (1960b). The "cooling-out" function in higher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5(6), 569-576.
- Clark, B. R. (1980). The "Cooling Out" function revisited. In G. B. Vaughan(ed). Questioning the community colleges role.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32(4), 15-3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lowes, D. and B. Levin(1978). The cooling out function reconsidered. ED 172899.
- Dougherty, K. J. (1994). The contradictory college: The conflicting origins, impacts, and futures of the community colleg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Eaton, J. S. (1994). All access is not equal: The need for collegiate education in community colleges.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86(2), 3-11.
- Fredrickson, J. (1998). Today's transfer students: Who are they? Community College Review, 26(1), 43-54.
- Gannon, P. J. (1981). 1990년대의 미국 지역사회대학의 전망. 『공업기술교육』, 5, 33-38.
- Goodmyn, A. (1981). 지역사회대학에 관한 인식의 발전: 영국인의 눈에 비친 미국의 Community College. 『공업기술교육』, 8, 22-27.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28(6), 545-579.
- Heinemann, H. and E. Sussna(1977). The economic benefits of a community college education. Industrial Relations, 16(3), 345-354.
- Karabel, J. (1972a). Community colleges and social stratifi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42(4), 521-562.

- Karabel, J. (1972b). Perspectives on open admissions. *Educational Record*, 53(4), 30-44.
- Karabel, J. (1977). Community colleges and social stratification: Submerged class conflict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edited by J. Karabel and A. H. Hals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32-254.
- Karabel, J. (1986). "Community colleges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1980s".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54(2), 13-30.
- Kester, D. L. (1974). The community college counselor is the college's primary institutional leader in the "coolingout" process. ED 097937.
- Kettlewell, G. B. (1986). Arthur M Cohen: Benevolent critic of the community college.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0(1), 73-93.
- Leigh, D. E. and A. M. Gill(2003). Do community colleges really divert students from earning bachelor's degre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1), 23-30.
- Lewis, D. R. , J. C. Hearn, and E. E. Zilbert(1993). Efficiency and equity effects of vocationally focused post secondary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66(3), 188-205.
- Pascarella, E. T. (1997). It's time we started paying attention to community college students. *About Campus*, 1(6), 14-17.
- Pincus, F. L. (1980). The false promise of community colleges: Class conflict and vocational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3), 332-361.
- Pincus, F. L. (1986). "Vocational education: More false promises", In L. S. Zwerling (ed.), *The community college and its critics*.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54(2), 41-52.
- Pope, A. (1983). 미국의 지역사회대학의 특성. 『공업기술교육』, 23, 11-19.
- Roksa, J. (2006). Does the vocational focus of community colleges hinder students' educational attainment?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9(4), 499-526.
- Rosenbaum, J. (1998). College-for-all: Do students understand what college demand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1), 55-80.
- Rosenbaum, J. E. (2001). *Beyond college for all: Career paths for the forgotten half*.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Rosenbaum, J. E. , J. Redline, and J. L. Stephan(2007). Community college: The unfinished revolutio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3(4), 49-56.
- Scott, J. W. (1999).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nnon, H. D. , and Smith, R. C. (2006). A case for the community college's open access mission.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s*, 136(4), 15-21.
- Seidman, I.(2007).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이승연 외 역. 학지사. 2009.
- Valadez, J. (1993). Cultural capital and its impact on the aspirations of nontraditional community college students. *Community College Review*, 21(3), 30-43.